

##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전남서남	061-462-7177
남동공단	070-4756-0119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경기	031-251-7095	포항	054-278-1339
안산/시흥	031-491-7097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02-2636-2148	창원공단	0899-2090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부산/양산	051-637-7433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정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광주	062-453-4012	대전충북	043-236-5077

#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2017년 5월호

2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3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 [노동자 권리 찾기] 어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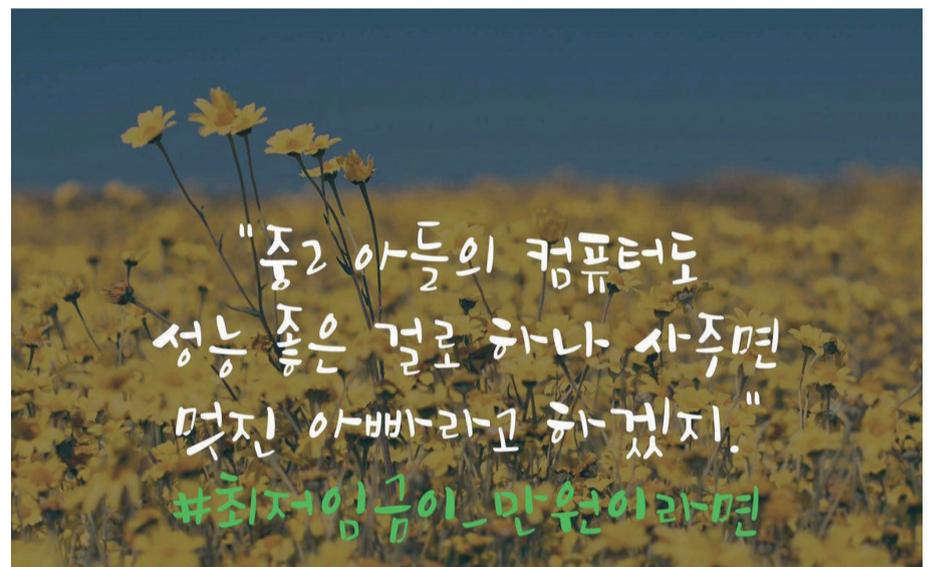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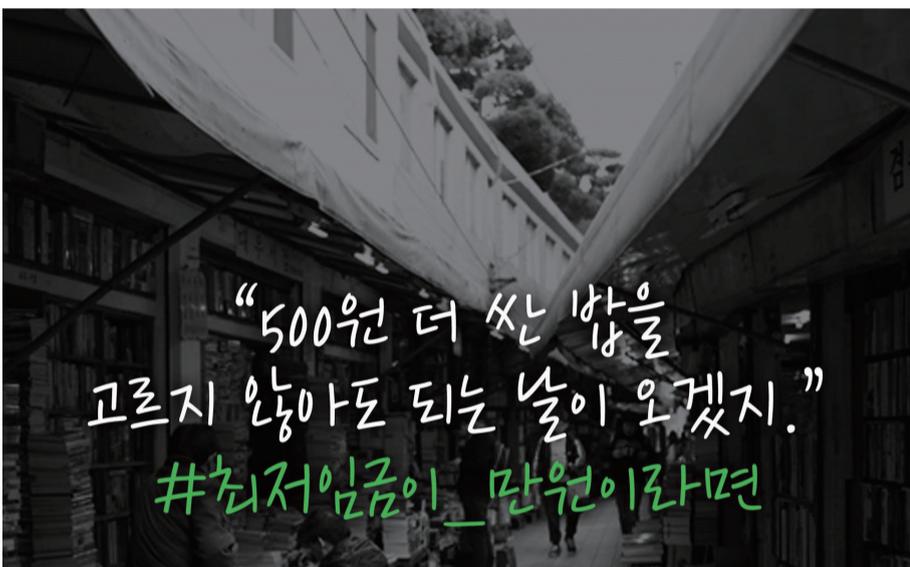
4-5면 단결론 / 광주 아지매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6면 삼성중공업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 / 책 『산재 100문 100답』

7면 이주민 정치활동 허용 / 녹산공단 체육대회

8면 민주노총 노-정교섭 제안 / 비정규직 차별시정 인권위 진정

## 최저임금 '지금 당장 1만원' 가능하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현실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밝힌 대로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을 실현하려면 지금 당장 1만원 인상은 시급한 문제다.

노동자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단계 인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1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다.

###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

노동자들은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구별 가구원 수는 평균 3.32명이다. 민주노총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3인 가족은 한 달 급여보다 50만원, 4인 가족은 80만원이 넘는 고정지출액이 발생

했다. 이 50만원과 80만원은 매월 가계의 빚으로 쌓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은 커녕 가계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망한다?

2014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는 565만 명이다. 이들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0%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는 30%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과 재벌이 만든 빵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게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불능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재벌들

은 최저임금 1만원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재벌과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에게 하청을 주면서 납품단가를 극도로 낮추어 지불하고 있다. 납품단가 수익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가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전년 대비 6%, 46조원 늘어 807조원에 달한다. 재벌·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로 돌려주면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재벌·대기업의 책임과 비용을 높인다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의 기업구조는 재벌·대기업 원청이 중소기업에 도급비를 주고 하청을 주는 수직관계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재벌·대기업의 돈으로 하도급 구조 아래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가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후퇴시키거나 단계 인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바뀔겁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가능할까요?

전체 노동자의 60%가 공공부문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더하면 국민 대부분입니다. 30대 재벌 곳간에는 사내유보금만 807조 쌓여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재벌개혁, 재벌증세가 실현되면 지금 당장 1만원 가능합니다.

##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죠?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 재벌이 책임져야 합니다. 재벌기업의 이윤은 줄이고,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려 최저임금 1만원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재벌책임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재벌독식 구조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재벌개혁의 출발점입니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왜 최저임금만 요구하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절로 재벌개혁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신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신정부의 시험대입니다.

우리 삶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촛불광장이 열립니다**

**모이자, 5월 27일!**

2017.5.27.(토) 17:00 광화문광장

f @10000wonnow (만원행동을 검색하세요)

##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만의 요구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 노동자 임금이 따라오릅니다. 2013년 미국에서는 시급 15달러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 천만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급이 3-7달러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오릅니다.

## 경제가 위기라는데, 임금 인상해도 되나요?

경제위기에도 재벌 이윤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기업에게만 갔던 돈을 노동자 임금으로 풀어야 합니다. 노동자 주머니를 채워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1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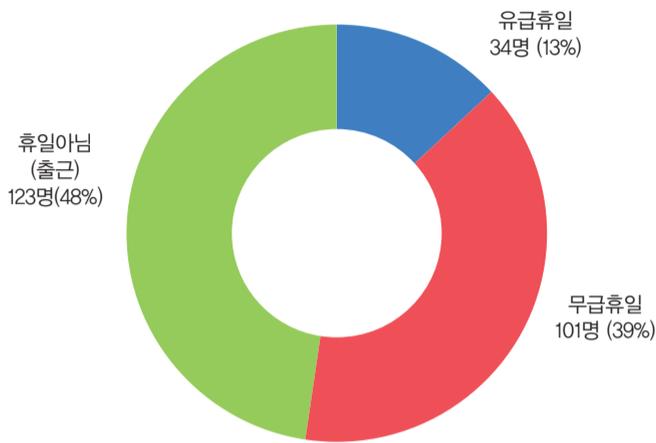
##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토론에서 만납시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를 위해 만납시다.

# 대통령 선거일에 쉬었나요

## 조선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 13%만 유급휴일...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입니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일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이다. 수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통령 선거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다. 경남 거제, 통영, 고성에서 일하는 조선하청노동자 노동조합이 대통령 선거일인 5월9일 하루 동안 조선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를 벌였다. 258명의 유효응답자 중, '대통령 선거일이 휴일인가'라는 질문에 '휴일이 아닌 출근하는 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23명(48%)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는 대답이 101명(39%)을 차지했다. 이 질문에 답변한 101명 중,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44명뿐이었고 57명은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노동자는 고작 34명(13%)에 불과했다. 조선하청노동자 중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는 극히 소수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실상에서 조선하청노동자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5월9일 당일 투표를 한 사람(96명)보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113명)이 더 많았다. 조사에 답변한 조선하청노동자 사전투표율은 44%로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26%보다 훨씬 높았다. 투표를 하지 않은 노동자는 49명(19%)이었다. 대다수 조선하청노동자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객지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투표

가 아니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도 쉽지 않다. 사전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지만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어린이날도 쉬지 않고 출근했던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시급

정부가 각종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조선하청노동자들은 출근해야 한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 권리인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휴일은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은 휴일이지만 법률상 강제성이 없어 개인사업장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노동자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 공휴일을 법 제도로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2013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

**금속 인자~! 우덜도 뭉치자~! 쫘~!!**

# 조선하청노동조합 가입하자!

노동조합 가입문의: 055)642-4833  
 인터넷 카페: [cafe.daum.net/gtgu](http://cafe.daum.net/gtgu)  
 핸드폰으로 가입하기 <https://goo.gl/ejgsjg>

### [노동자 권리 찾기]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인사·징계·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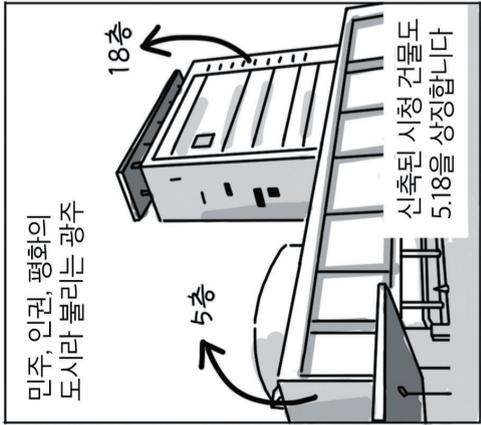
최저임금,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실수령액,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신고 있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노동자 권리 찾기]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내용 이외 궁금한 점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는 각 지역 센터, 민주노총 등 연락처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마트폰에 [노동자 권리 찾기] 어플리케이션 내려 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봅시다. 알아야 이깁니다.

# 광주 아지매를 만만하게 보지 마쇼잉!

글 · 그림 이재임, <월간 오늘날> 제공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 불리는 광주

18층  
5층  
신축된 시청 건물도 5.18을 상징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 이매순씨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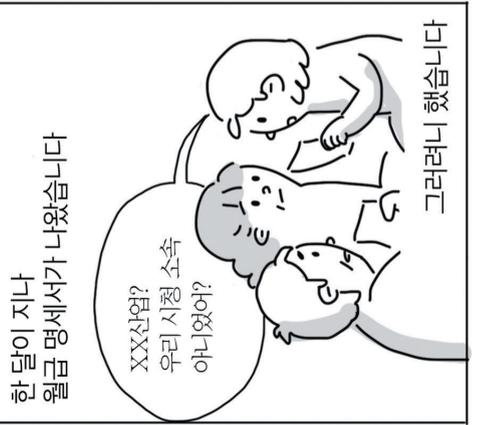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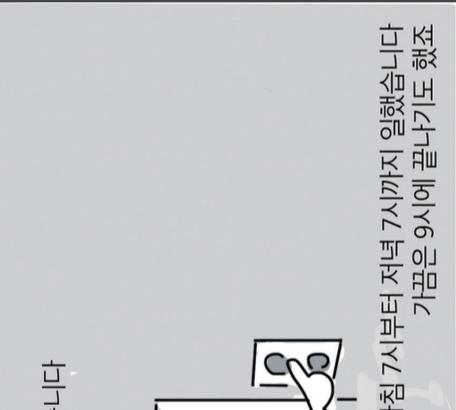
전임주부였던 그녀는 2004년, 시청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죠

남편 월급만큼 조금 빼듯하니까...



마치 아무도 없는 건물처럼 개관 전의 시청은 엘리베이터가 안 댔습니다  
걸어서 18층을 오르내렸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가끔은 9시에 끝나기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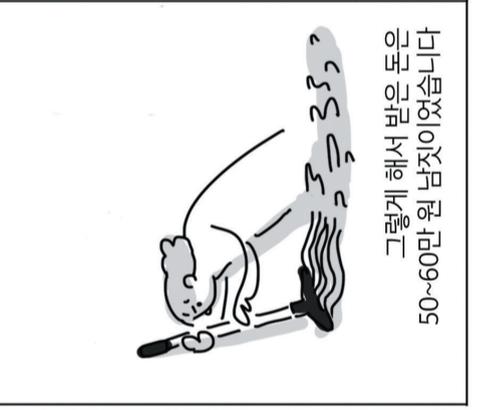
한 달이 지나 월급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XXX산염? 우리 시청 소속 아니었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럼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기름 참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은 50~6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레 노조 얘기를 꺼냈습니다

노조?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남편도 노조원이었습니다  
입사할 때 자동가입되는 한국노총이 있었지요

상여금을 떼서 기본급에 붙여준다더니 결국 그대포잖아 말장난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노조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진 못했지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금방 모였습니다



반장과 소장 부인이 반겨주었습니다

이미 사촉에서 노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스스로 목소리 내기 위해 노조를 하는 건데 반장이나 소장 부인 말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게 이뤄졌습니다

정시 퇴근이라니! 해가 밝아 그런가 눈물이 흐르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레베루가 올라 좋았습니다



아 진짜 할걸 그랬어-

그러다 3년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참나, 똑같이 들어왔는데 비조합원은 재계약하고 우리만 쫓아내? 핑계는...!

어쩐디나 우리는?  
짜워어지  
노조의 싸움...?



아따 이 세상에 너무 과도한 민주주의가 와버렸서! 노조 새끼들이 다 패러부수니 범지가 무너져버려!!!

짜까 과격하긴 허제

2007년 3월 7일  
조합원들이 있던 방의 풍경도  
어쩌면 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건들지 마쇼잉

전경이 막아서고  
시청 직원이 끌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에서 못 봤는데!

마치 태풍의 눈처럼  
싸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세계라도 있던 걸까요

부적을 축하받기에  
복식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440일은 죽음의 목표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목표는 선명해졌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많은 우리 편을 만들어'

3명이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소장 눈치에  
조합원을 피했습니다

다시 시청에 깃발을 꽂았으니  
신고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해 동료들을 초대했어요

먹는 것에  
장사 없으니까!

그 길로  
21명의  
복직투쟁이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다!

아, 일할 데가  
여그밖에 없나?  
언능 안 오고 뭐 해!

그게 아냐, 여보!

사실 널리 게 일자리니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일자리가 얼마든지  
다른 이로 대체될 수 있던 것과 같았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이것 좀  
드세요

있지...  
언니 음식에선  
우리 엄마 손맛이 나

마음을 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알 것 같았습니다

소장이란  
사람이!!

직원들 양팔 한 짝  
못 사줄망정  
돈을 받아  
쳐먹고 앉았냐!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청 추과의 면담은  
번번이 좌절되었는데...

시장이다!

막아서서 직원 틈을 비집고  
시청과 마주 섰습니다

아빠  
아저씨들...

조용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 줄 것인데...

우리가 조용-히  
일한다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요!

대신 화내워서 고마워 언니  
나도 돈 주긴 싫었는데  
소장이 나만 힘든 곳에  
쳐박아두니까...

조합에 들어와

...사실 난 무서워  
가임서 쓰긴 했는데 찢릴까봐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아야  
마찬가지고.

아... 음... 그제...

조합에 들었기 때문에  
복적이 된 것이라 생각했  
내가 소장한테 한소리 할수있는  
유일한 사람인 이유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담당 내일이라도  
가임서를 찢어 줄 테니까  
관단은 너의 몫이제

야, 해 줘라, 해 줘!

에이싱!

시장이!

정말 머지 않아  
합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진심어린 축하인사가  
오하려 허망했습니다

이매순씨가 광주시청에 온 지 14년째입니다  
그동안 조합원 수는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나~

어, 왔어?  
머리피는 안 했네  
하나 줄까?

왜?

아냐, 괜찮아

그냥...  
너무 뻘깁니다

얼씨구-

칼 길이 멈구만!!

#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사망 삼성이 책임져라

## 노동절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무너져 여섯 명 사망...위험의 외주화 뿌리 뽑아야



삼성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사망사고 책임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터에 노동자들을 내몬 삼성중공업에 있다. 원청사인 삼성중공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반드시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고 재발을 위해서도 '위험을 외주화' 관행을 법 제도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사진=경상남도소방본부

지난 5월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크레인 아래에 있던 비정규직노동자 여섯 명이 사망했고 스물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알아보고 있다. 사고의 규모가 크고 노동자가 여러 명 죽은 중대재해라서 경찰은 삼성중공업을 압수수색했고 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와 경찰이 아직 공식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삼성중공업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의 50%인 1만2천여 명이 5월1일 노동절 휴일에 작업하기 위해 출근했고 위험한 공정에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크레인 이 두 대나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두 대의 크레인은 충돌했고 지브크레인이 무너졌다.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작업 반경 안의 노동자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시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삼성중공업

의 안전관리잘못으로 발생했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난 뒤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조를 하러 온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응급환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은 죽어 가는데 구조는 늦어지고 있었다. 사고가 뒤 재해자를 신속하게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역시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다.

삼성중공업은 원청 노동자에 비해 몇 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면 배를 만들 수 없는 구조다. 삼성중공업은 이윤을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에 몰아넣고 있다. 위험에 대한 책임을 하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원청은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발뺌한다. 노동절에 삼성중공업조선소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잘못된 생산구조가 계속된다면 사고는 재발한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삼성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사망사고 책임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터에 노동자들을 내몬 삼성중공업에 있다. 원청사인 삼성중공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반드시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고 재발을 위해서도 '위험을 외주화' 관행을 법 제도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산재 100문 100답』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다가 산재불승인 불복기간 90일마저 지나 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재해 인정 보상 절차 소송의 모든 것

『산재 100문 100답』(2015년 개정판)은 10년 이상 산재상담 경력을 갖춘 공인노무사 세 명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산업

재해의 인정, 보상, 절차, 소송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책은 업무상 사고,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산재보험·보상·신청절차로 구성돼 있습니다.

『산재 100문 100답』(2015년 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은 산재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책임입니다.

· 지은이 : 한창현, 유성규, 권동희 · 펴낸곳 : (주)매일노동뉴스 (02-364-6900)  
· 가격 : 25,000원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에서 주문가능)

# 이주민의 ‘정치활동 금지’를 ‘금지’해야

## 출입국관리법 17조,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 위반하면 강제출국 당할 수도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통령이 바뀌자 청와대 앞길의 경찰도 친절해졌다고 한다. 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는 신선했다.

선거기간 동안 왜곡되긴 했지만 이번 대선은 분명히 촛불이 상징하는 민중의 힘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이주민들은 촛불에 힘을 보탤다. 세계가 놀랐다는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주민들은 ‘국민’보다 더 많은 용기를 내야 했다. 출입국관리법 17조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모순이다. 국내 언론들은 촛불집회 현장이 외국인 필수 관광길이 됐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카메라에 잡힌 이들은 주로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었다.

주변 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인 국내 장기 체류 이주민들은 단순 서명에 참여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다. 유학생들의 공동성명서 발표는 학교 측의 압력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17조가 단지 엄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표적단속 해 강제출국 시키고, 강정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참여하려는 활동가들을 쫓아내는 근거로 썼다.

###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국제사회는 외국인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각 국가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입장은 참정권 등 직접 정치 참여에 대한 것일 뿐이다. 국제사회는 이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권리를 누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

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유엔 총회는 모든 외국인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거주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장기체류 이주민은 사실상 한국 사회 구성원이지만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정치 표현의 자유, 작은 목소리조차 용납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최근 수 년 동안 권위로 겹겹이 둘러친 장막에 갇혀 고통을 겪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는 지금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찾는 노력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소장

# 녹산공단 노동자, 하나 되어 함께 뛰었다



<녹산노동자 희망 찾기>가 5월7일 녹산 희망공원 운동장에서 ‘부산 녹산공단 체육대회’를 열었다. 녹산공단 체육대회는 이주노동자들과 녹산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팍팍한 공단의 일상에 활력을 주고 노동자 사이 친목과 연대를 꾀하는 자리다. 2012년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았다.

## <녹산노동자 희망 찾기> 부산 녹산공단 체육대회 열어... 이주노동자·공단 노동자 잔치 벌여

<녹산노동자 희망 찾기>가 5월7일 녹산 희망공원 운동장에서 ‘부산 녹산공단 체육대회’를 열었다.

녹산공단 체육대회는 이주노동자들과 녹산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팍팍한 공단의 일상에 활력을 주고 노동자 사이 친목과 연대를 꾀하는 자리다.

2012년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았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OX퀴즈, 줄다리기 등 조 대항 공동체 경기로 뭉쳤다. 이주노동자들은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나라별 경기를 통해 제 나라의 실력을 뽐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나라별 노래자랑, 무료건강검진 등 다양한 딸림 행사를 열었다.

체육대회를 주최한 <녹산노동자 희망 찾기>는 녹산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10년 민주노총 산하조직과 부산·경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스스로 참여해 결성했다. 녹산공단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공단노동자 생활임금보장 활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공단노동자 산행모임, 체육대회 등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부와 부산시,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공단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임금체불, 산재, 해고, 불법파견 등 노동법률상담  
최저임금 위반, 부당노동행위 신고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지원활동  
산행모임 등 취미 문화 활동

서부산 노동상담소와 상의하세요.  
051-941-8211

#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평등사회 위해 “직접 대화하자”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 제안...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제시

“전체 임금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며, 네 명 중 한 명이 월 133만원도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인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평등 해결은 불가능하다.”

“한국 노동자들의 년 노동시간은 2,113시간에 달한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66시간에 비해 350시간 가까이 길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적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정권교체와 변화를 넘어 사회 대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5월12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제안'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 직접교섭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선거 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일자리정책 등을 4대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5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

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선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약 이행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구성과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동정책협의를 위한 ‘대화’의 창구가 열릴 것인가.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향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밝힌 약속들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라고? 차별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산업안전 대책 차별 심각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 사이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흰색 작업모와 노란 작업모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고, 사내 의료실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편히 이용할 수 없었던 현장 ‘차별’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현대제철 공장 곳곳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이 남아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은 탈의실과 목욕탕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고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사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만여 명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복리후생제도와 산업안전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원청 현대제철 공장의 설비·시설에서 일하다 산업재해 당해도 시설 개선과 위험요소를 제거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청과 대화창구가 없어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진과 순천공장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노조)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의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든 결과다.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차별을 국가인권위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려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의미를 밝혔다.